

중1-1
국어
지학사

2026 중1-1 국어 지학사 | 1(2) 오우가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이 단원에서는 상징과 운율의 개념, 표현 방법, 효과를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징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며, 운율은 시어의 배열이나 소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정서를 강조하는 요소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운율 형성 방식의 차이, 상징적 시어의 기능과 의미를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상징의 정의와 해석 방식, 운율 형성의 다양한 방법, 화자의 정서, 표현상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벗이 몇인가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나)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가

㉡구천에 뿌리 곧은 줄을 그로 하여 아노라

- 윤선도, 「오우가」

1. 이 시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조는 음수율과 음보율이 드러나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이다.
- ②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6구로 구성된다.
- ③ 시조는 조선 시대의 사대부 계층에서만 창작되었다.
- ④ 연시조는 평시조 여러 수를 묶은 형태이다.
- ⑤ 종장의 첫 마디는 일반적으로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2. (가)와 <보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
그 밖에 다른 일이야 부러울 것이 있으랴
- 윤선도, 「만흥」

- ① 자연을 삶의 벗으로 여기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② 화자는 자연 속의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 ③ 현실의 고단함을 벗어나고자 자연을 도피처로 삼는다.
- ④ 자연의 질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그 한계를 인식한다.
- ⑤ 세속의 성공에 대한 갈망을 담아 현실에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3. (나)의 ‘꽃’과 ‘잎’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꽃’과 ‘잎’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 ② ‘꽃’과 ‘잎’은 소나무가 지닌 불변의 가치와 절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 ③ ‘꽃’과 ‘잎’은 일반적인 식물이 계절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 ④ ‘꽃’과 ‘잎’은 자연물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⑤ ‘꽃’과 ‘잎’은 소나무가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기 위한 장치이다.

4. <보기>를 참고할 때, (나)의 ㉠ '솔'에 담긴 상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윤선도: 내가 살던 때는 자연물을 통해 사람들이 지녀야 할 성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곧게 자란 대나무로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 ① 솔은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결한 절개를 상징한다.
- ② 솔은 다양한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자연친화적 성향을 상징한다.
- ③ 솔은 자연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순응하는 지혜를 상징한다.
- ④ 솔은 풍요로움과 성장의 의미를 담아내는 존재로 표현된다.
- ⑤ 솔은 인간의 감정을 위로하는 정서적 치유의 존재로 나타난다.

5. 이 시의 말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 ② 인간관계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 고독을 즐기고 있다.
- ③ 자연물을 예찬하며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달과 같은 자연물에서 위안을 얻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외적인 부귀보다 내면의 평온을 중시하는 태도를 지닌다.

【6~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앞마을 냇가에선 / 풍풍 포웅 풍
 ㉡ 뒷마을 연못에선 / 풍풍 푸웅 풍
 - 심후섭, 「봄비」

(나)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다.
 그는 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 내 장미를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은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옛날 내 여우와 같아. 수많은 다른 여우와 다를 게 없는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지. 그러나 내가 친구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여우가 됐어.”

이 말에 장미꽃들은 난처했다.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러나 너희들은 비어 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을 거야. 물론 모르는 행인은 내 장미도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나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전부보다 더 소중한. 내가 물을 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유리 덮개를 씌워 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 준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벌레를 잡아 준 꽃이기 때문이야(나비가 되라고 두세 마리만 남겨 놓고). 내가 불평을 들어 주고, 허풍을 들어 주고, 때로는 침묵까지 들어 준 꽃이기 때문이야. 그것이 내 장미이기 때문이야.”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지음, 황현산 옮김,
 「어린 왕자」

(다) 너는 쿵쿵 자나 봐
 문을 쿵쿵 두드리고 싶지만
 어두컴컴한 밤이라
 문자로 쿵쿵쿵쿵 쿵쿵 찍어서 보낸다
 온종일 쿵쿵대는 내 맘을
 시시쿨쿨 적어 전송했지만
 너는 쿵쿵 자다가
 아주 짧게 ㅋ 한 글자만 찍어서 보냈다
 ㅋㅋ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큰 걸 바라지는 않았어

- 장기하 작사, 「키읔」

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자연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 ② (나): 어린 왕자와 장미의 관계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드러낸 우화이다.
- ③ (나): 반복과 대조를 활용하여 장미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다): 화자의 서운함과 기대가 동시에 드러난다.
- ⑤ (다): ‘ㄱ’과 같은 표현을 통해 감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7. (가)의 운율 형성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성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문장 구조의 유사성이 반복되어 운율이 형성된다.
- ③ 짧은 구절의 반복으로 경쾌한 운율이 만들어진다.
- ④ 자음과 모음을 반복하여 리듬을 살리고 있다.
- ⑤ 단어의 길이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긴장감을 준다.

8. <보기>에 제시된 (다)의 표현 방식과 운율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는 ‘ㄱ’ 소리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함으로써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되고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흥이 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① 자음 ‘ㄱ’의 반복을 통해 경쾌한 말의 가락이 형성된다.
- ② 반복되는 소리와 형태는 리듬감을 주며 운율 형성에 기여한다.
- ③ 화자의 감정이나 분위기가 반복되는 소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 ④ 운율은 특정 소리의 반복이나 어구의 나열을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
- ⑤ 같은 글자의 나열은 단조로움을 유도하여 지루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9. ㉠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세상에서 하나뿐인 외적인 아름다움
- ② 자신이 길들여 특별해진 존재
- ③ 대중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고립된 자아
- ④ 다른 존재들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존재
- ⑤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태도

10. (나)에서 ‘길들임’의 상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거부하는 태도
- ② 관계가 형성되기 전의 무관심한 거리감
- ③ 특별한 존재로 변화하게 되는 관계 형성의 과정
- ④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지 않는 보편성의 가치
- ⑤ 인간과 자연의 대립을 강조하는 상황

11. (나)에 나타난 ‘내 장미’와 여우가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두 외적인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소중함이 결정되는 존재이다.
- ② 관계가 맺어진 대상에게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을 상징한다.
- ③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존재이다.
- ④ 서로에게 특별해진 유일한 관계를 형성한 존재이다.
- ⑤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을 대변하는 상반된 존재이다.

목안 배포금지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시조는 작가층이 임금에서부터 평민, 기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 ① 시조는 정해진 형식을 지닌 우리 고유의 정형시이며, 음보율과 음수율이 존재하므로 적절하다.
- ②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진 3장 6구의 구성이며, 이는 평시조의 기본 형식이므로 적절하다.
- ④ 평시조를 여러 수 엮은 것이 연시조이고, 「오우가」는 여섯 수의 연시조이므로 적절하다.
- ⑤ 시조 종장의 첫 마디는 일반적으로 3음절로 시작하는 것이 형식상 원칙이므로 적절하다.

2. 정답 ①

(가)와 <보기> 모두 자연 속의 삶을 긍정하며 자연을 벗 삼아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두 작품 모두 자연 속에서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고독과 괴로움을 느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자연을 도피처로 삼는다고보다는, 자연 그 자체를 삶의 이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자연에 대한 비판이나 한계 인식은 드러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의 덕성을 예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화자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욕망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정답 ③

더우면 피고 추우면 지는 일반적인 식물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꽃’과 ‘잎’은 계절 변화에 따라 피고 지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시련 속에서의 강인함보다는 일반 식물의 변화를 보여 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꽃’과 ‘잎’은 소나무가 아니라 일반 식물의 특징

을 보여 주는 표현이므로, 소나무의 절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꽃’과 ‘잎’은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는 일반 식물의 특성을 보여 주기 위해 제시된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소나무가 자연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점을 강조하려는 대비 요소로 쓰였을 뿐, 소나무를 비판하려는 목적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①

‘술’은 눈서리를 모르는 존재로 표현되며, 고난 속에서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모습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므로 적절하다.

- ② ‘술’은 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존재로 표현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자연 변화에 따라 순응하는 모습은 일반 식물의 특징이며, ‘술’은 이에 대비되는 존재로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풍요와 성장은 ‘술’의 중심 상징과 거리가 있으며, 작품의 맥락에서도 강조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정서적 위로보다는 도덕적 덕목인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5. 정답 ②

화자는 자연 속 고독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연과의 교감과 만족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수석과 송죽’을 벗이라 여기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술’을 예찬하며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라는 표현을 통해 자연물인 달에게서 정서적 위안을 느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다섯 벗이면 충분하다는 표현은 세속적 욕망보다 내면의 평온함을 중시하는 태도로 읽히므로 적절하다.

6. 정답 ③

(나)에서는 반복과 대조가 사용되지만, 이는 장미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미에 대한 감정적 유대와 의미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가)에는 ‘퐁퐁’, ‘포옹포옹’, ‘퐁퐁’, ‘푸웅퐁’ 등의 음성상징어가 반복되어 봄비가 떨어지는 소리와 물결의 움직임 표현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나)는 어린 왕자가 장미와 여우를 통해 관계의 의미와 진정한 소중함을 깨닫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징과 교훈이 담긴 우화적 성격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다)에서 화자는 ‘쿵쿵대는 내 맘’, ‘시시콜콜 적어 전송했지만’, ‘ㄱ 한 글자만’ 등의 표현을 통해 기대와 서운함을 모두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다)에서는 반복되는 ‘ㄱ’, ‘쿵쿵’, ‘콧콧’ 등의 표현이 단순한 소리 이상으로 화자의 감정 상태(설렘, 실망 등)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정답 ⑤

단어의 길이는 일정하고 간결하며, 긴장감을 주기 위한 변화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퐁퐁 포옹 퐁’, ‘퐁퐁 푸웅 퐁’처럼 의성어가 반복되어 청각적 리듬을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앞마을 냇가에선~’, ‘뒷마을 연못에선~’처럼 문장의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되어 운율 형성에 기여하므로 적절하다.
- ③ 짧고 반복적인 구절로 경쾌한 말의 가락이 형성되므로 적절하다.
- ④ 자음 ‘ㅍ’, ‘ㅇ’, 모음 ‘ㅛ’, ‘우’ 등을 반복하므로 적절하다.

8. 정답 ⑤

‘ㄱ’의 반복은 단조로움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ㄱ’의 반복은 시에서 경쾌한 리듬과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므로 적절하다.
- ② 소리와 형태의 반복은 시의 리듬감을 형성하므로 적절하다.
- ③ 반복되는 소리를 통해 화자의 기대, 실망, 유쾌함 등의 감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 ④ 운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리, 형태의 반복을

통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정답 ②

‘내가 물을 준 꽃’, ‘내가 바람을 막아 준 꽃’ 등 반복된 정성과 길들임의 과정을 통해 특별해진 존재를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① 어린 왕자는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러나 비어 있어.”라고 말하며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관계와 정성을 중요시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내 장미’는 관계 속에서 의미가 생긴 존재이지 고립된 자아를 상징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어린 왕자는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전부보다 더 소중한.”라고 말하며 차별화된 유일성을 강조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장미는 변화나 태도와 관련된 상징이 아니라, 정성과 애정이 깃든 유일한 관계를 나타내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③

여우는 “내가 나를 길들이면, 너는 내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가 돼”라고 말하며 관계를 통해 특별한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①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며, 오히려 책임과 관심의 태도를 강조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길들여지기 전의 상태는 무관심한 거리감이 맞지만, ‘길들임’ 자체의 의미는 아니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길들임은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생기는 과정이므로, 보편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길들임은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나 대립이 아닌 교감과 유대의 형성을 나타내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정답 ④

어린 왕자에게 ‘내 장미’와 ‘여우’는 길들임을 통해 특별해진 존재로, 둘 다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를 상징하므로 적절하다.

- ① 어린 왕자는 장미에게 “너희들은 아름다워, 그러나 비어 있어.”라고 말하며 외적 아름다움이 아닌 관계 속 의미를 강조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정서적 거리감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지고 특

별해진 관계를 상징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여우와 장미는 일상 속 감정을 은유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대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갈등이 아닌 교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되므로, 상반되거나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목민배포음지